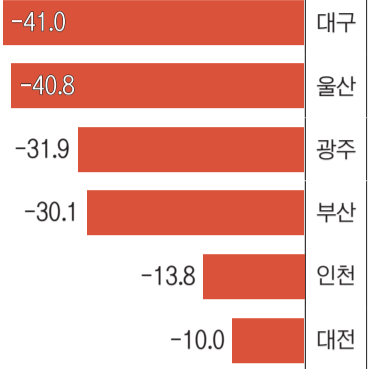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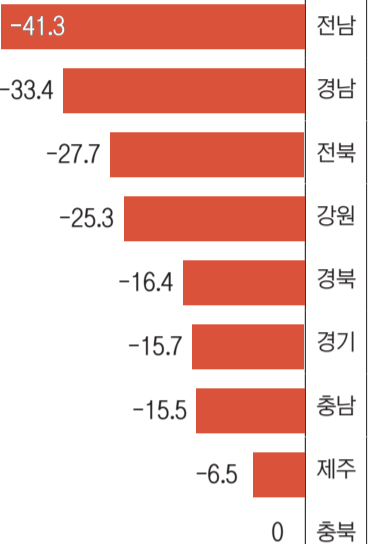


'코로나19' 광주·전남 수출 집어삼켰다

■ 6개 광역시 수출 감소율 (단위:%) (4~5월 전년 동기대비)



■ 9개 도 수출 감소율 (단위:%)



(자료:한국무역통계진흥원)

석유화학·철강·선박·車 등 전 분야 급감 전남 '-41.3%' 전국 시·도 중 가장 심각

전남 제조업 기둥인 석유화학, 철강, 선박 등 모든 부문 수출이 급감하면서 15개 시·도 가운데 가장 수출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도 북미·중남미를 중심으로 자동차 수출이 곤두박질치면서 지난 4~5월 수출이 1년 전보다 32% 감소했다.

이 같은 내용은 21일 이준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과장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광주전남지역 수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5월 지역 수출은 광주 31.9%, 전남 41.3% 감소했다.

특히 전남 수출 감소율은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 광주도 6대 광역시 중 대구·울산에 이어 감소율이 3번째(전국 5번째)로 높았다.

전남 뒤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대구(-41%), 울산(-40.8%)이 수출 부진이 심했고 경남(-33.4%), 광주(-31.9%), 부산(-30.1%), 전북(-27.7%), 강원(-25.3%), 경북(-16.4%), 경기(-15.7%), 충남(-15.5%), 인천(-13.8%), 인천(-13.8%), 대전(-10%), 제주(-6.5%), 충북(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의 수출 부진은 올해 2분기부터 본격화했다.

지난 1분기(1~3월) 수출은 1년 전보다 광주 1.2%, 전남은 11.7% 감소했지만 4~5월 들어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산업별로 들여다 보면 광주·전남지역 모두 주력 산업 수출이 부진했다.

광주지역은 북미와 유럽에 주로 수출되는 자동차와 타이어 수출 타격이 컸다. 지난 4~5월 두 달 동안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2.7%(-4억3200만달러) 급감했고, 타이어도 52%(-4900만달러)에 달하는 감소율을 기록했다.

올해 위니아대우 광주공장의 세탁기 생산라인 태국 이전과 북미·유럽 봉쇄조치를 겪은 가전부문에 30%(4900만달러) 수출이 줄었다. 비대면 확산으로 호황을 맞은 반도체 부문마저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출이 11%(6700만달러) 감소했다.

전남지역은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 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선박 부문 수출이 크게 줄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 수출 감소율이 57.3%(-9억8000만달러)로 가장 컸고, 철강(-48%), 선박(-45.4%), 석유화학(-32.3%) 등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였다.

올 들어 1~5월 전남 주요 조선업체의 선박 신규 수주량은 1년 전 보다 73.5% 급감

한 15만1000 CGT였다.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하락과 세계 교역량 감소가 맞물리면서 수출액이 급감했다. 철강제품은 중국 철강업체들의 공급확대로 철강 단가가 세계적으로 떨어진 데다, 올 들어 자동차 생산차질 영향도 받으면서 함께 내리막길을 걸었다.

특히 석유제품·석유화학·철강 모든 부문의 아시아 지역 수출이 지난해보다 41.8% 줄어들면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15억 9100만달러에 달하는 수출액 감소가 발생했다.

광주·전남지역은 수출이 지역내총생산(GR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 절벽' 피해가 더 컸다.

GR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52.7%·전남 40.5%로 전국 평균(35%)을 크게 웃돈다. 20년 전인 2000년 비중(광주 26.4%·전남 20.9%)에 비하면 2배 늘어난 수치다.

이준범 과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유통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를 위한 신속한 자금지원과 비대면 해외 마케팅 등을 통한 수출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사태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돌아오는 '리쇼어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스마트공장이나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적용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228.83 (+30.63)
- ↑ 금리(국고채 3년) 0.818 (+0.017)
- ↑ 코스닥 790.58 (+8.62)
- ↓ 환율(USD) 1197.80 (-5.40)

코스피 1% 급등...5개월만에 최고점

30.63p 오른 2228.83

코스피가 21일 1% 이상 급등하며 5개월여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0.63포인트(1.39%) 오른 2228.83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월 17일(2242.17) 이후 최고점이다.

지수는 이날 미국 증시 상승에 힘입어 전날보다 20.99포인트(0.95%) 오른 2219.19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했다.

미국 증시에서 비대면(언택트) 관련 대형 기술주가 급등했고, 여기에 유럽연합(EU)의 코로나19 구제금융 협상 타결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426억원과 1467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었고, 개인은 5623억원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기계(6.89%)가 7% 가까이 급등한 가운데 화학(2.79%)과 전기·전자(2.05%), 운수장고(2.18%), 증권(2.38%)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8.62포인트(1.10%) 오른 790.58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5.34포인트(0.68%) 오른 787.30에 개장해 강세 흐름을 이어가며 790선을 찍었다.

개인이 1033억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943억원과 341억원 순매도했다.

/연합뉴스

해양에너지 채용연계형 인턴 10여명 선발

㈜해양에너지는 지난 2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채용 연계형 인턴사원 필기시험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인턴사원 모집 분야는 영업·안전관리 부문으로, 지원자 가운데 134명의 서류 전형 합격자가 인적성검사를 치렀다.

해양에너지 측은 인적성검사를 기존 광산구 본사에서 진행해온 것과 달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김대중컨벤션센터 3개관을 확보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응시자들은 사전 방역된 공간에서 발열검사와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거치고 좌석간 2

m 이상 거리를 두며 필기시험을 봤다. 이날 1차시는 적성검사, 2차시에는 인성검사가 진행됐다.

이후 오는 8월 1차 면접, 건강검진, 최종면접을 거쳐 10명 안팎 최종 합격자가 가려질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인턴사원은 9월부터 4개월간 영업·안전관리 분야에 배치돼 직무 교육과 협업을 수행한다.

해양에너지는 지난 2017년부터 채용 연계형 인턴사원 채용을 진행하며 3년 동안 총 40명을 채용했다. 이중 70%에 달하는 26명이 정규직 전환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고객 접근성 높이겠습니다" 진월동 지점 등 8개 점포 1층으로 이전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해부터 8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전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 20일 진월동 지점을 기존 2층에서 인근 1층 건물(남구 서문대로 741)로 옮겼다.

고객중심·지역밀착경영 방침에 따라 광주은행은 지난해부터 광주·전남에 6개 점포를 신설했다. 순천연향동 지점 등 위치상 고객 접근성이 다소 불편한 영업점 8곳을 1층으로 이전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추가로 이전하는 지점은 2곳이다.

현재 광주은행 영업점 수는 145개점이며, 광주·전남 117개, 수도권에 28개 지점이 있다.

송 행장은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은 물론 금융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전남 2층 이상 영업점을 선별해 1층으로 점진적으로 이전하고 있다"며 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왼쪽 다섯 번째) 임직원들이 지난 20일 진월동지점 1층 건물(남구 서문대로 741) 이전을 기념했다. (광주은행 제공)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각각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을 대상으로 교육·마케팅·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등을 패키지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예비창업의 경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5개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개팀을 지원한다. 초기창업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20개팀을 지원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모집분야를 8개 비대면 분야로 제한했으며, 의료, 교육, 소비·물류, 오피스, 액티

비티, 지역콘텐츠, 비대면 기반 기술, 유티 등 분야에 해당된다.

사업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비대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지역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지역콘텐츠 분야에 처음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다.

예비창업패키지사업에 지원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지원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초기창업은 8월7일, 예비창업은 8월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여부는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